

유족 취재는 ‘깎끼빠빠’

매일경제

차창희 기자



지난 6월20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린 이천 물류창고 공시장 화재 희생자 합동 영결식에서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8년 11월, 태어난 후 처음 세 글자 이름 뒤에 ‘기자’라는 명칭이 붙은 후 머릿속에 자리 잡은 가장 큰 고민은 ‘유족을 어떻게 취재할 것인가’였다. 기자 지망생이었던 시절, 안타까운 사건사고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모습과 사연을 접할 때면 남몰래 조용히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슬픔과 함께 떠오른 생각은 ‘미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오열하는 그들 앞에 서서 당당히 질문을 할 수 있을까’였다. 무례하다고도 생각했고 이렇게까지 취재를 해서 기사를 써야 할까란 근본적 의문도 들었다. 언론이 어느 ‘선’까지를

지켜서 유족 취재를 하고 또 보도를 해야 하느냐는 고민이었다. 하지만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바쁘게 현장을 뛰어다니고 선배들의 지시를 온전히 감당하기에도 벅찬 사회부 수습기자의 특성상 그 당시엔 이런 고민에 답을 내릴 시간이 없었다. 어쩌면 두 달간의 수습기자 기간 동안 유족 취재가 없기만을 은근히 바랐는지도 모르겠다. 문제는 이 고민에 대한 나름의 답을 내리기도 전에, 실전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왔다는 점이다.

2018년 11월9일 오전 7시30분, 서울

종로구 관수동에 위치한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7명이 목숨을 잃었고 11명이 부상을 당했다. 당시 경찰서에서 마와리를 돌던 나는 1진 선배의 다급한 목소리가 담긴 전화를 받았다. “지금 당장 택시를 타고 주민센터에 마련된 유족 피난처로 가서 유족 취재를 해라”는 지시였다. 부랴부랴 택시를 잡고 현장으로 가는 길에 가슴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무엇을 물어야 할까’, ‘유족들이 취재를 거부하면 어떡하지’,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등등의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수습기자 입장에서 이런 생각은 사치에 불과했다. 미처 생각을 정리할 틈도 없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마치 100m 경주를 하듯이 주민센터 2층에 마련된 유족 피난처로 달렸다.

현장에선 이미 2명의 타사 수습기자들이 도착해 취재를 시작한 상황이었다. 그때 든 생각은 ‘물을 먹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었다. 유족들이 앉은 순서대로 돌아가며 무릎을 꿇고 앉아 질문을 했다. “매일경제 수습기자 차창희입니다. 혹시 화재 당시 상황에 대해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유족들은 침울한 표정으로 나의 질문을 외면했다. 그럴 때

면 실망할 틈도 없이 그 옆에 위치한 유족에게 다가가서 동일한 질문을 했다. 그때 든 생각은 ‘선배에게 혼나면 안 되겠다’는 것이었다. 그때 처음으로 날 찾는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내가 억울해서 참을 수가 없다”는 말로 시작한 그 피해자분은 당시 고시원에 화재 방지를 위한 스프링클러가 없었다고 소리를 치며 예견된 참사였다고 주장했다. 사망자가 가정환경이 어려워 고시원에 홀로 지내며 일용직 근로자로 하루하루 연명했다는 안타까운 사연도 말해줬다. 당시 선배들에게 1차 보고를 해야 했던 나에겐 가뭄의 단비 같은 ‘휴먼스토리’였다.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90도로 인사를 드린 후 또 다른 유족들에게 다가갔지만 대부분은 욕설을 하거나 취재를 거부했다.

당시의 경험은 퇴근길 버스에서 종종 하던 ‘유족 취재의 선’의 고민에 대한 스스로의 기준을 세워야 하겠다는 성찰로 이어졌다.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그들이 원하지 않는 취재를 억지로 해야 하느냐는 고민이었다. 사고 당시의 아픔도 치유되지 못한 유족들에게 ‘너의 사연을 얘기해봐’라는 질문이 잔인하게 느껴졌



임태준 이천시장이 지난 4월30일 경기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화재 참사 현장 인근 모가실내체육관에 마련된 피해 가족 휴게실을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다수 언론이 유족 취재를 적극적으로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휴먼 스토리란 명분하에 장려하는 걸 고려하면 이러한 생각은 결국 취재 경쟁에서 뒤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들었다. 결국 당시 내린 결론은 ‘과하지 않게 취재를 하자’였다. 이 짧은 한 문장을 정리하는 데 긴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하니 우습지만 그래도 나름 원칙이 생긴 점에서 뿌듯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이 기준을 실

전에 적용해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2018년 12월17일, 고등학생 10명이 강릉의 한 펜션에 투숙했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3명이 숨진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번에 취재 지시를 받은 곳은 사망자들의 시신이 안치된 강릉의 한 장례식장이었다. 1진 선배는 “현장에 머물면서 유족들의 반응을 살피라”는 짧고 간결한 지시를 내렸다. 나름의 기준을 세웠던 나였기에 그 원칙에 맞게 움직였던 걸로 기억한다. 울부짖는 유족들이 장례식장에 도착하면 무작정 질문

하기보다 시간을 두고 기다렸다. 유족들이 조금 진정을 찾은 듯하면 그제서야 질문을 하곤 했다. 그렇게 2박 3일을 병원, 장례식장을 넘나들었다. 그렇게 유족들의 스토리를 담은 기사를 몇 개 작성했다. 감정적으로 힘든 시간이었지만 기준으로 행동한다는 생각에 지난 고시원 화재 사건 때보다 마음은 한결 편안했다.

그러던 중 타지 수습기자에게 보기 좋게 물을 먹었다. 그 수습기자는 어떻게 알아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족들의 전화번호를 몇 개 공수해 전화 인터뷰를 시

도했고, 그중 한 사례를 ‘어머니의 편지’ 형식으로 기사를 작성했다. 당시 10여 명의 수습기자들이 장례식장에 모여 있었는데 그 기자만 해당 사연을 따낸 상황이었다. 그 기사는 인터넷에서 많은 댓글이 달리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것으로 기억한다. 수습기자에게 ‘물먹는다’는 건 곧 1진 선배들의 압박이 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사실이 두려웠던 탓인지 물을 먹은 게 분했던 탓인지 또 다른 타지 수습기자는 두 글자의 욕설을 목청껏 외치기도 했다.

이 경험으로 기준을 새로이 정해야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당국 등 정부 합동감식반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이 아닌 책상... 안전관리자, 서류와 싸움중

지금 한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로 근무하는 A씨는 걱정이 많아졌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물류센터 화재 사건 이후 시공사에서 현장 안전을 강조하지만 실제 현장을 돌 볼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A씨는 "안전관리자는 말 그대로 현장 안전을 보전하기 위해 집중해야 하는데 오히려 서류와 보고서 작업에 매달려 있으니 현장 관리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조심스럽게 걱정거리를 털어냈다.

A씨에 따르면 안전관리자에게 부여 된 책임의 무게는 무겁지만 현장을 돌 김 시간이 여유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 런 구조에서 사고가 나면 순원의 책임을 뒤집어써야 한다는 점에서 현장에 나온 안전관리자는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사망자 38명이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 당시 공사 현장에서 유 독물 안전관리자가 보이지 않았다는 유 족들 증언이 나오면서 각종 건설 현 장에서 일하는 안전관리자 역할과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단 현 장에서 일하는 안전관리자들은 유독물 발 연을 바탕으로 물류창고에 내는 안전관 리자들도 과도한 서류 작업을 지어 현 장을 제대로 살피지 못할뿐 아니라 추 쫓한다. 각 지방 고용노동청, 산업안전 보건공단, 발주처, 시공사, 관리업체 등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로 안전관리자 책임·역할 관심 커

"작성해야 할 보고서만 수십가지" 정작 현장위험 감시할 시간 부족

이재명, 근로감독관 놀리자... "서류만 확인하는게 문제" 지적도

현장 안전관리자의 애로사항을 듣고 아이디어를 얻었다. (매일경제, 2020년 5월12일)

상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한다.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안전관리자는 산업안 전지도사 자격을 소유했거나 산업안전안 전기사, 건설산업안전기사 이상 자격 을 취득해야 한다.

창사가 벌어진 이천 물류창고는 공 사 급에 620여명으로 1명 이상 안전 관리를 선임해야 한다. 시공사 전우 는 안전관리자 10명을 선임했다고 어 전시공에 신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 지만 공사 현장에서는 이들 오소습을 한 달 동안 보지 못했다는 증언이 속속 나 오고 있고, 사망자 중에서도 안전관리 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규모 건 설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B씨는 "이런 화재 현장에 안전관리자 가 없었다면 아마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물론 안전관리자 책임도 있지만 현 장을 제대로 점검 수 있는 구조부터 만들 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복수의 안전관리자들 말에 따 르면 이들은 관할 노동청 등에서 요구 하는 서류 작업에 곤궁할 수밖에 없 어 실제로 현장을 제대로 살피는 데 한계가 있다. 일일안전원지, 위험성평 가보고서, 건설기계안전관리보고서, 1500여쪽 미만의 사업장은 2명 이상 안전 관리자를 두어 하고, 공사 급에 1조 원 넘는 초대형 공사장은 최소 11명 이

다. 여기에 안전점검의 날, 노사합동검 검 등 공사 현장 안전과 관련한 행사도 많다. 근로감독관들이 현장을 방문하 면 각종 서류와 보고서부터 확인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자들 사이에서는 "서 류 만달라 죽겠다"는 소리가 지 나온다 고 한다.

안전관리자들은 소위 '저승사자'로 불리는 근로감독관들의 현장점검 방 식 도 대해 개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근로감독관들이 현장을 돌보다가 보 다는 것이다. 근로감독관들이 현 장보다 서류와 보고서를 먼저 챙기기 때문에 안전관리자들도 여기저기 서류 와 보고서 작업에 많은 시간을 쓸 수밖 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경기도지 사가 이천 화재와 관련해 지난 1일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대해서도 현 장 안전관리자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대 처 라는 입장이다. A씨는 "노동자의 단결과 안전을 위해 300여 명과 불 화 한 노동경찰(근로감독관)을 죽시 1만 명 이상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장 안전관리자들은 "근로 감독관을 늘릴 게 아니라 안전관리자 수를 늘리자" 안전관리자의 보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서류 작업을 줄여주는 등 현장 개선안이 더 시급 하다"는 입장이다.
지형희 기자

현장 안전관리자의 애로사항을 듣고 아이디어를 얻었다. (매일경제, 2020년 5월12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어찌 됐든 남에게 뒤쳐지는 퍼포먼스를 보이고 싶진 않았다. 그저 남들 하는 대로만 하자는 '과하지 않게'란 안일한 생각은 기자란 직업과는 맞지 않은 듯 느껴졌다. 문득 스쳐간 생각은 무조건 유족 취재가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설령 내가 욕을 먹더라도 기사를 읽는 독자들이 유족들의 슬픔, 우리 사회의 문제점 등을 알 수 있다면 그게 기자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세운 시즌 2 원칙은 '끼끼빠 빠'였다. 언론에 본인의 사연과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호소하고 싶은 유족들에겐 적극적으로 취재하되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히는 유족 취재는 포기하는 미덕을 발휘해야겠다는 생각이었다. 강릉 펜션 참사 당시 수많은 언론이 유족들의 목소리를 다뤘고 또다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분노의 여론이 형성됐다고 생각한다. 적극적인 유족 취재는 또 후진적인 사고가 반복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한 아이 디어도 제공해줬다. 조금 더 우리가 살 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큰 힘이 될 수 있 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 한 발자국 나아가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까'라는 고민 에서 단순 유족들의 이야기보다 또 다 른 기사거리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얻었다. 나름의 원칙을 정하면 나무보단 숲을 볼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 었다.

두 달간의 수습기자 생활 동안 유족 취재는 이렇게 두 번 찾아왔다. 이후 수 습 딱지를 떼 나가는 사회부를 떠나 이 '끼끼빠빠'를 실행할 기회가 없었다. 치열한 사건사고 현장을 떠난 후 1년 뒤인 2019년 10월, 다시 사회부로 발령이 났다. 평탄한 생활을 이어가던 2020년 4월29일,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한 물류창고 공 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8명이 목숨

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이천에서 가까운 강남에 있었던 지라 출동 지시를 받고 곧장 택시를 타고 화재 현장으로 향했다. 그래도 두 번의 유족 취재 경험을 했고 나름의 원칙을 정한 때문인지 마음은 담담했다. 유족 취재에 대한 우려보다 ‘화재 현장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까’, ‘공사현장에 스프링클러는 있었을까’, ‘왜 사망자들은 빠져나오지 못했을까’라는 고민을 했다.

몇 차례 서울과 이천을 넘나들면서 수많은 유족들을 만났다. ‘깰끼빠빠’에 따라 적극적으로 취재를 하되 불쾌한 기색을 보이면 “죄송하다”는 말을 남긴 채 뒤돌아서서 나왔다. 냉랭함 속에서도 본인들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싶어 하는 유족들도 있었다. 그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질문을 했다. 그렇게 다음 날 지면 안에 잡힌 휴먼 스토리 꼭지들을 해결했다. 이천 화재 취재를 통해 느낀 점은 기자의 입장에서 그들을 ‘취재’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유족의 입장에서 ‘대화’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란 것이었다. 한 번은 구석에서 신발을 벗은 채 맨 발로 힘없이 앉아 있는 유족을 본 적이 있다. 위압감을 느꼈는지 어떤 기자도 그 유족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용기를 내

그 유족에게 다가간 나는 우선 10분 동안 말없이 옆에 함께 앉아 있었다. 이후 “선생님, 많이 슬퍼 보이십니다”라는 말을 건넸다. 그러자 그 유족분은 한숨을 한 번 쉬 후 “의형제를 맺은 형님을 잃었다”며 얘기를 시작했다. 유족에게 제공된 도시락도 함께 먹자고 권했다. 기자로서 ‘어떤 사연이 있느냐’고 대놓고 묻는 것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진행하는 게 유족들의 마음을 여는 데 효과적이란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그때 그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되돌아서 생각해 보니 자연스레 건넨 한마디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유족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없었다”였다. 그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 문득 든 생각은 ‘왜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있을 수 없을까’란 의문이었다. 유족과의 대화를 통해 얻게 된 아이디어였다. 그래서 안전관리자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입해 그들의 얘기를 들어봤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서류 작업이 너무 많아서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다”는 호소였다. 현장의 안전을 책임질 안전관리자가 서류 작업 때문에 본업인 현장을 소홀히 하는 건 분명히 문제가



지난 4월30일 오후 경기 이천시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마련된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있는 현실이었다.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 안전관리자가 보다 현장에 신경을 쓸 수 있게 해주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기사를 작성했다. 이후 한 건축 기업에게서 “기사를 잘 봤다. 내용에 공감하며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미나를 준비했다”는 연락을 받기도 했다.

일련의 유족 취재를 통해 내가 내린 결론은 이렇다. 다른 기자 중에선 더한 고민이 얹힌 ‘깰끼빠빠’를 넘어서 훌륭한 원칙을 세웠을 수도 있다. 하지만 최소 나에겐 이 원칙을 정한 것만으로 기

자 생활이 풍요로워졌다고 생각한다. 모든 일엔 고민이 동반되어야 하고, 그 고민으로 인해 삶은 더욱 개선될 수 있다. 특히 개인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발로 뛰어야 하는 기자라면 더더욱 그렇다. 물론 일상 속에서 고민을 유지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하루하루 기사 발제만 하기에다 벽찬 게 현실이다. 그렇지만 ‘고민을 해야겠다’는 고민을 하는 것만으로도 지난 2018년의 나보다 한 단계 발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